

지의 찬 『유마경현소』 텍스트의 定本化 시도 I

—미노부산문고(身延山文庫) 소장 사본 발굴을 계기로—

이재윤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융합학과 박사과정)

국문초록

천태 지의(538~597)가 왕에게 헌상하기 위해 찬술했던 『유마경현소』(이하 『현소』)는, 지의의 저작에서 보기 드문 친찬에 준하는 문헌이자 가장 만년의 저술로서 그 사상적 가치가 주목되어 왔다. 이러한 『현소』는 오랜 기간 입장되지 못하다가 근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에도시대 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만속장』과 『대정장』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만속장』과 『대정장』에 수록된 『현소』의 텍스트는 다수의 오탈자와 착간 등, 원문의 불완전성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소』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 원문의 정본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현소』에 대한 연구와 역주는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소』 권1~권2에 대해, 현존하는 제본을 교감하고, 관련 문구를 검토하여 오탈자를 교정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논자가 최초로 발굴한 일본 미노부산문고 소장 『현소』의 사본을 검토한다. 미노부산문고는 『현소』 권1~권2의 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본 사본은 필사연도나 저본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또한 잔결본이기 때문에 성립에 관한 명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현소』의 거의 유일한 사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본 사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뒤, 현존 제본과의 교감 결과와 『현소』의 주석서와의 대조를 통해 그

저본이 『만속장』과 『대정장』의 저본이 되었던 에도시대 간본보다 선행하는 다른 계통이었던 것을 입증할 것이다.

주제어: 천태, 지의, 『유마경현소』, 『대정장』, 정본화, 미노부산문고, 사본

I. 서론

지의 찬 『유마경현소』 6권(이하 『현소』)은 구마라집 역 『유마힐소설경』(이하 『유마경』)의 주석서로, 지의 특유의 경전해석 방법인 오중현의를 통해 그 경제를 해석하는 문헌이다.¹⁾ 『현소』는 지의의 가장 만년에, 훗날 수 煬帝가 되었던 晉王 廣의 의뢰를 받아들여, 현상을 목적으로 찬술된 일련의 『유마경』에 관한 주석서 중 하나이다.²⁾ 이러한 『현소』는 지의의 가장 만년의 저작이라는 점, 지의의 저작에서 보기 드문 친찬 혹은 친찬에 준하는 찬술 경위를 가진다는 점³⁾ 등의 특징으로 그 가치가 주목되어 왔다.⁴⁾

현재 『현소』는 『대정장』 38권과 『만속장』 27권(新纂17권)에 수록되어 있다. 과거 중국과 한국, 일본의 여러 장소목록이나 입장목록 곳곳에서 『현소』의 명칭이 확인되고

- 1) 『현소』 전체의 구성과 각 권의 개략은 菅野博史 2012, 299-333 참조.
- 2) 찬술 경위와 세 번에 걸친 현상 과정, 그리고 제1회 현상본에서 별행된 유관 문헌과 『유마경문소』의 개략은 佐藤哲英 1961, 416-448 참조.
- 3) 본고에서 검토할 『현소』는 제3회 현상본에 속한다. 현존하는 간본과 대장경에 수록된 『현소』의 서명은 모두 “天台山修禪寺沙門智顓撰”이라고 기록하여 지의의 친찬(撰)이라고 적고 있지만, 지의의 행장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국청백록』에 의거한다면, 친찬은 아니고 구수본이다. (“在山兩夏專治玄義。進解經文。至佛道品。爲三十一卷。… 此之義疏。口授出本。一遍自治”。 T.46, 810a4-10) 그렇지만 이전의 현상본을 토대로 지의가 스스로 다듬었기 때문에 친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현소』를 포함한 지의의 『유마경』 관련 주석서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佐藤哲英의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 佐藤哲英은 “『유마경소』는 삼대부와 함께 후기시대에 있어서 지의교학의 연구자료의 二大雙璧이지만, 현행의 삼대부가 지의의 강설 그대로는 아니고 관정에 의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수치를 거친 것에 대비해서 이 『유마소』는 어떤 것도 지의의 친찬이거나 친찬에 준하는 가치가 높은 자료로, 특히 만년시대에 있어서 지의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자료라고 해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佐藤哲英 1961, 448. 그런데, 佐藤哲英의 이 같은 평가에 의구심을 갖고 관정을 비롯한 지의 제자들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몇 가지 연구도 제기되어 있다. 平井俊榮 1985, 45-99.; 小野嶋祥雄 2009, 33-60 참조.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있기 때문에⁵⁾ 성립된 이후 동아시아 삼국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현소』는 근대 일본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활자본 대장경에 수록되기에 이른다.

『대정장』과 『만속장』에 수록되어 있는 『현소』는 오탈자와 착간 등 텍스트 원문의 불완전성이 지적되어 왔다.⁶⁾ 이러한 문제는 두 대장경이 저본으로 삼았던 간본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대정장』은 저본으로 正保5년(1648), 대교본으로 貞享3년(1686) 간본을 명시하여 두 가지 간본을 기반으로 조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간본은 간행시기만 달리할 뿐, 본문의 내용과 서체 등의 형태가 전적으로 같은 동일계통의 간본이다. 마찬가지로 『만속장』 역시 저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⁷⁾, 『만속장』의 간행처인 京都大學 藏經書院에서 正保5년과 貞享3년 간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기존 간본과 본문의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며, 간본의 문제점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역시 같은 계통의 간본을 저본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하다.⁸⁾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⁹⁾, 『현소』의 텍스트 교정을 위한 또 다른 텍스트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간본의 경우 正保5년 간본에 앞서서 문헌은 발견되지 않고, 이후의 간본은 대개 正保5년 간본의 복사본이다. 사본의 경우 간본을 재차 필사한 것¹⁰⁾

5) 『현소』의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山口弘江 2017, 75-108 참조.

6) 大島啓禎 1979, 174-175.; 菅野博史 2012, 312-313.

7) 『만속장』의 저본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大日本續藏經第一輯案(第一次)」(『大藏經報』臨時增刊第24號, 1904, 19)과 「大日本續藏經第壹輯目錄」(『大藏經報』臨時增刊第76號, 1909, 14上)에서는 『유마경현소』의 저본에 대해 “刊”이라고 적고 있다. “刊”은 일본에서 출판된 간본을 가리킨다. 이 “刊”이 정확히 어떤 간본인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간행처인 京都大學 藏經書院에서는 正保5년 간본과 貞享3년 간본 두 가지를 모두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정장』과 마찬가지로 동일계통의 간본을 저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만속장』의 저본에 관한 정보를 조언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8) 그렇지만 『대정장』과 『만속장』은 조판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확인된다. 『대정장』의 편자는 명백한 오류로 생각되는 글자들은 특별한 주기 없이 임의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소』 전체에 걸쳐 ‘A=B?’ 형식으로 7개의 주기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만속장』의 편자는 대체로 저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의심되는 글자들은 ‘A疑B’, ‘A當B’ 등의 주기를 남기고 있다. 『만속장』의 주기는 『현소』 전체에 걸쳐 37개이다. 『대정장』의 임의적 수정과 주기, 『만속장』의 주기는 대체로 수용될 수 있지만, 편자에 의한 주기이기 때문에 교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또한 잘못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다.

9) 山口弘江 2017, 119-126 참조.

10) 사본의 경우 두 가지가 확인된다. 그 중 하나는 본고에서 검토할 身延山文庫 소장본이고, 다른 하나는 叡山文庫 소장본이다. 叡山文庫 소장본은 이미 山口弘江에 의해 검토가 되었다. 山口弘江에 따르면, 叡山文庫 소장본은 필사년도를 확정할 수 없지만, 이미 유포되고 있었던 간본과 같은 행수와 문자수에 가에리텐과 오쿠리가나 등도 충실하게 서사되어 있다고 한다. 山口弘江 2017, 123 참조.

과 잔결본만이 확인되고 있다. 이외 高山寺에 소장된 송본이 보고되어 있지만 역시 완본이 아닌 잔결본이다.¹¹⁾

이러한 현 상황에서 江戸時代에 활약했던 守篤本純(1702~1769)의 『維摩詰經玄疏籤錄』 3권(이하 『첨록』)은 텍스트 교감을 위해 주목되는 주석서이다.¹²⁾ 이 주석서에서 本純은 기존 간본과 송본을 교감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고,¹³⁾ 수문해석 과정에서 “A宋本作B”, “A下宋本有BC二字” 등의 형식으로 교감결과를 일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⁴⁾ 本純은 기존 간본과 송본의 차이를 120여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텍스트 교정을 위해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논자는 미노부산(身延山) 문고 소장 『현소』의 사본을 입수하여 검토할 수 있었다.¹⁵⁾ 미노부산 소장 사본의 존재는 이미 보고되어 있었지만¹⁶⁾ 현재까지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미노부산 소장본 역시 완본이 아닌 『현소』 권1~권2까지만 남아있는 잔결본이지만, 현재 『현소』의 거의 유일한 사본으로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이상과 같이 텍스트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소』의 사상을 해명하기 이전에 반드시 텍스트의 정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미노부산 소장 사본 발굴을 계기로, 『현소』 권1~권2의 현존 제본과 本純의 교감 내용, 그리고 미노부산 소장본의 상이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검토하여 교정한다. 이와 더불어 최초로 검토할 수 있었던 미노부산 소장본의 특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11) 高山寺經藏典籍文書綜合調查團編 1975, 290. 참조.

12) 本純의 『維摩詰經玄疏籤錄』은 駒澤大學 山口弘江 선생님께서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山口弘江 2017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13) 『첨록』 권1(1-左), “此玄卷數, 本製六卷. 以文疏卷末記所云爲證. 亦孤山之所據也. 若慈雲之教函目錄, 明智辯才所刻行, 并但五卷者. 後人調卷, 合六爲五耳. 然而本邦濃州所置宋本, 見六卷成. 不知誰者就五開六. 復舊貫也. 今本嘗親較長瀧本. 卷數體段, 全同無異. 知依宋本所刻也. 文字稍有脫誤. 隨文錄出, 在下可見焉.”; 하지만 本純이 참조했다는 濃州 長瀧寺의 송본은 현재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長瀧寺는 宋版一切經(思溪版)의 소장처로 유명한 곳으로, 송판일체경 외에도 ‘別函典籍類’로 분류되는 송판 전적류의 장의문헌들이 소장되어 있다. 長瀧寺는 1899년 화재로 인해 많은 문헌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山口弘江는 本純이 참조했다는 『현소』는 ‘別函典籍類’에 속했으며, 화재로 인해 산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山口弘江 2017, 105-106 참조.

14) 本純의 교감 결과는 元文5年(1740) 간행 『再校維摩經玄義』에 반영되어 있다. 元文5년 본도 기존 간본의 복각본인데, 上邊欄 위 天頭 부분에 사각형을 두고 그 안에 두주를 남겨 교감 내용을 덧붙여 제차 판각한 것이다. 本純과 『첨록』, 『재교유마경현의』에 대해서는 山口弘江 2017, 97-104 참조.

15) 사본의 촬영과 활용을 허락해주신 身延山文庫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16) 身延文庫典籍目錄編集委員會編 2005, 377-378.

II. 현존 제본을 통한 정본화 시도

1. 교감 결과

교감표를 제시하기 이전에 먼저 미노부산 소장본의 경우, 蟲損이 매우 심해 육안으로 세세하게 살피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사실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사본의 경우 보입한 글자, 교정한 글자, 그리고 글자의 순서를 바꾸는 기호 등이 작게 부기되어 있는데¹⁷⁾, 蟲損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분명 어쩔 수 없이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전체 교감표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면상 교감표 전체는 【부록】으로 미루고, 본 장에서는 주요한 교감사항만을 선별해서 제시한다. 본 범례는 【부록】까지 통용된다.

〈범례〉

1. ‘T’는 『대정장』 38권, ‘X’는 『만속장』 27권, ‘간본’은 正保5年본의 복각본인 貞享3年 본과 元文5年본을 가리킨다. 貞享3年본과 元文5年본은 모두 正保5年본의 복각본이기 때문에 하나의 간본으로 간주한다. ‘身延山’은 미노부산 소장 사본을 가리킨다. 현재 『현소』는 『대정장』본이 가장 많이 읽히기 때문에 『대정장』본의 페이지와 행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2. ‘송본’이란 本純이 교감한 내용을 가리킨다. 本純은 ‘A宋本作B’, ‘A下宋本有BC二字’ 등의 주기 형식으로 송본과의 상이점을 지적하고 있고, ‘A宋誤作B’의 형식으로 송본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 주석은 모두 논자가 대응하는 『대정장』의 행수에 맞추어 형식을 제외하고 B 또는 BC 등의 결과만 입력했다. 本純의 주기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었다.
3. 세주의 경우, ‘〈 〉’으로 표기했다.
4. 미노부산 소장본에서 蟲損 등의 손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시했다.
5. 미노부산 소장본에서 수정된 글자를 반영할 시에는 본 글자/수정글자로 표기했

17) 본 사본의 교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Ⅲ장을 참조바란다.

다.

6. '교감'에서 괄호 () 안 글자는 있어도 무방한 경우, 혹은 통용될 수 있는 글자를 가리킨다.
7. '비고'란에서, '이하 동', '이하 다수'는 계속해서 동일한 상이점을 나타나거나 본 사본의 필사자가 습관적으로 통용해서 쓴 글자를 가리킨다. 한 번 제시한 뒤 이후 교감에 특이점이 되지 않는 이상 도표에서 제외했다.
8. 無=无, 總=惣, 慧=惠, 砂=沙, 耶=邪 등의 이체자, 통용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般-槃, 訶-呵 등 범어의 음역어 등을 잘못 쓴 경우, 혹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시했다.

〈표 1〉 T38 『현소』 권1과 제본의 비교 및 교정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결과	비고	
1	519b4	人	人	人	者	者	者	
2	519c20	有多	有多	有多	多	多	多	
3	520a25	門	問	問		問	問	T 편자 오류
4	520b15	釋	釋	釋	譯	譯	釋	
5	b17	釋	釋	釋	譯	譯	釋	
6	b24	攝	攝	攝	稱	稱	稱	
7	520c11	檀	壇	壇	檀	旦	檀	사본, 檀=旦 이하 동
8	522b15	治門	治門	治~門	治門	治門	治門	~는 闕字處
9	522c9	名名	名名	名名	名	名	名	
10	523a10	人天	人天	人天	天人	결락	人天	
11	a14	聲聞	聲聞	聲聞		聲	聲	
12	523c20	于	于	干	于	于	于	

〈표 2〉 T38 『현소』 권2와 제본의 비교 및 교정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결과	비고	
1	524b5	撰	撰	木+巽	撰	撰	撰	
2	524b13	別名	別名	別名		名別	名別	
3	b21	登	登	登	位登	位登	位登	
4	b25	翻釋名義	翻釋名義	翻釋名義		翻名釋義	翻名釋義	
5	c16	有	有	有	在	在	在	
6	c19	偏	徧	徧	偏	偏	偏	

7	525a22	所	所	所	初	初	初	
8	a28	智	智	智		境智	境智	
9	525b10	何得	何得	何得		何得不	何得	
10	525c11	掘	拙	拙	掘	掘	掘	
11	c14	義	義	義	之義	之義	之義	
12	526a21	折	折	折	析	折	析	
13	526c11	非	悲	悲	非	결락	非	
14	526c14	塗	塗	塗		途	途	
15	c21	愛愛	愛愛	愛愛		受受	受受	
16	c23	意法	意法	意法	爲法	爲法	爲法	
17	527a18	生可	生可	生可		生不可	生可	
18	527 c45	不生生	不生生	不生生		不生生	生不生	논자수정
19	c21	重	重	重		種	種	
20	c28	籍	籍	籍		藉	藉	
21	528a11	生不生	生不生	生不生		生不生	不生生	논자수정
22	528b11	此	此	此	比	此	此	
23	528b16	本	本	本		本立	本立	
24	528c3	依	依	作		作	作	T,X 편자 오류
25		列	列	州		州	州	T,X 편자 오류
26	c9	殊	殊	殊	珠	殊	殊	
27	c16	是	是	是	是入	是入	是入	
28	529b2	文	文	又		又	又	T,X 편자 오류
29	529c2	法	方	方	法	法	法	
30	c8	遍	偏	偏	徧	遍	遍(徧)	
31	c18	遍	偏	偏	徧	遍	遍(徧)	
32	c19	妄境	妄境	妄境	妄境 妄境	妄境	妄境破 妄境	논자 수정
33	530a7	滿也	滿也	漏也		漏	漏(也)	T, X 편자 오류
34	531b2	似	以	以	似	似	似	
35	b24	遊	遊	遊	遊於	遊於	遊於	
36	532a10	修	修	修		修	種	논자 수정
37	a14	等	等	等		第	第	
38		修	修	修		種	種	
39	a23	屬	屬	屬	囑	囑	囑	

2. 정본화 시도

1) 교감 유형

이상, <표1>과 <표2>를 통해 『현소』 권1~권2에 해당하는 제본의 상이점을 비교하고 교감 결과를 제시했다. 교감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송본 및 사본에 의거하여 교정한 것, ② 대장경 편자의 오류를 고친 것, ③ 논자가 판단해서 제본과 다르게 고친 것이다. 각각 의미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 검토한다.

먼저 ①은 <표1>의 5개소, <표2>의 20개소가 해당한다. 이 결과는 ①-1결락된 글자를 보충한 경우, ①-2연자나 복수의 글자 중 불필요한 글자를 삭제한 경우, ①-3순서가 바뀐 경우, ①-4다른 글자로 고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①-1결락된 글자를 보충한 경우이다. <표2>의 3 登一位登은 『대정장』의 관련 문장에서는 “淨名者, 登補處, 智隣極境.”¹⁸⁾이라고 되어 있다. 번역하면, “‘정명’이란 보처에 올랐고 지혜는 極境에 가깝다” 정도가 된다. 이 문장을 송본 및 사본에 의거하여 ‘位’를 보충하여 번역하면, “‘정명’이란 지위는 보처에 올랐고 지혜는 極境에 가깝다”가 된다. 곧 이 문장은 정명, 즉 유마힐에 대해 설명하면서 ‘補處’라는 位와 ‘極境’이라는 智를 대응시켜 설명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位’가 보충되어야 문장이 완전해진다.

①-2연자나 복수의 글자 중 불필요한 글자를 삭제한 경우이다. <표1>의 9, 名名一名의 관련 문장은 “方等諸經者, 名大集等經也. 以集一切佛法, 故名大集. 是大涅槃名名諸佛法界佛性涅槃, 舍一切佛法也.”¹⁹⁾이다. 화법사교가 모두 설해지는 방등교와 열반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방등교의 경전인 『대집경』과 『열반경』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여기서 『대집경』에 대한 설명과 같이 “A를 이름 붙여 B라고 한다”의 형식이기 때문에 ‘名’은 한 글자만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표1>의 12 聲聞→聲은 『대정장』의 관련 원문은 “造立天地經云, 寶應聲聞菩薩, 示號伏犧.”²⁰⁾이다. 『조립천지경』이라는 현존하지 않는 위경을 인용하여 ‘보응성문보살’이 복희로 시현했다고 설명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복희로 시현했다는 ‘보응성문보살’

18) 『현소』 권2(T.38, 524b21)

19) 『현소』 권1(T.38, 522c8-10)

20) 『현소』 권1(T.38, 523a14)

은 『홍명집』 등의 중국에서 이른 시기에 제작된 몇몇 불서들에서도 등장하는데²¹⁾, 『현소』를 제외하고 모두 ‘聞’이 빠진 ‘보응성보살’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聞’을 삭제했다.

①3순서가 바뀐 경우이다. <표2>의 4 翻釋名義→翻名釋義는 “명칭을 번역하고 뜻을 해석한다”는 의미로 『현소』 권2 ‘유마힐’이라는 별명을 해석하는 첫 번째 대단락을 가리킨다. 『대정장』은 단락을 나열할 때는 ‘翻釋名義’로,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翻名釋義’라고 하고 있는데, 송본에는 교감 내용이 없지만 사본은 모두 ‘翻名釋義’로 되어 있다. 의미의 일관성을 따라 ‘翻名釋義’로 교정하였다.

①4다른 글자로 고친 경우이다. 이 경우가 교감 사항 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1>의 6 攝→稱의 경우, 해당 문장은 “此例如大涅槃, 是胡漢兼攝也.”²²⁾이다. 여기서는 ‘悉檀(siddhānta)’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으로, ‘실단’의 여러 번역어를 소개한 뒤 남악 혜사의 견해를 빌려 ‘悉’은 ‘모두’라는 의미인 한어로, ‘檀’은 ‘보시’, 즉 ‘dāna’를 음사한 범어라고 설명한다.²³⁾ 그리고 한어와 범어가 겹하여 사용되는 예시로 ‘대열반’이라는 용어를 들고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는 어의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攝’보다 ‘稱’이 더욱 자연스럽다.

<표2>의 6 有→在의 경우, 관련 문장이 “但三身之義, 備有衆經.”²⁴⁾이다. 문법 상 ‘有’가 되려면 주어인 ‘三身之義’가 ‘有’ 뒤에 와야 적절하다. 따라서 ‘在’로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대체로 송본이나 사본에 의거해 교감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표1> 4, 5의 ‘釋’과 ‘譯’의 경우, 송본과 사본 모두 ‘譯’으로 적고 있지만, 간본의 ‘釋’을 따른다. 이 부분은 ‘悉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단락의 명칭이다. 이 단락에서는 실단의 여러 번역어를 제시한 뒤 지의 나름대로 해석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²⁵⁾ 따라서 단순한 ‘翻譯’이 아닌, ‘번역과 해석’이라는 의미인 ‘翻釋’이 옳다. 유사한 대목이 별석의 석명장 중 권2의 「翻名釋義」 단락이다. 여기서는 유마힐’의 세 가지 번역어를 소개한 뒤, 첫 번째의 번역어는 번거롭다고 하여 취하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번역어

21) 『廣弘明集』(T.52, 140a17-18) ; 『安樂集』(T.47, 18b7-8)

22) 『현소』 권1(T.38, 520b23-24)

23) 지의의 ‘실단’에 대한 해석이 범어의 원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이미 지적된 것과 같다. 中村元, 김지건 역 1990, 21-23 참조. 본고의 논지와는 관련 없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생략한다.

24) 『현소』 권2(T.38, 524c16)

25) 『현소』 권1(T.38, 520b17-26) 참조.

를 택해 불신론과 연계시켜 해석한다.²⁶⁾ 이 설명을 포괄하는 단락명이 ‘번명’과 ‘석의’라는 의미인 ‘翻名釋義’라고 하는 점은, 여기서도 ‘번역’이 아닌 ‘번석’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송본의 오류라고 해야 할 것이다.

②의 경우, <표1>의 1곳, <표2>의 5곳에 해당한다. 조판과정에서 저본이 되었던 간본의 글자를 유사한 글자로 잘못 인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2>의 24 依→作은 관련 내용이 삼삼매 중 무작삼매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 문장은 “四句明修，卽是四種作義。若無四修，卽無四依。是無作三昧也。”²⁷⁾이다. 『대정장』과 마찬가지로 『만속장』에서도 ‘依’으로 적고 있지만, 간본의 ‘作’字를 유사한 글자 ‘依’자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송본에는 교감이 없다. 이것은 당시 ‘作’으로 되어 있었다는 반증이다. 사본에서도 간본과 마찬가지로 ‘作’으로 적고 있다.

<표2>의 33 滿→漏 역시 『대정장』과 『만속장』 모두 ‘滿’으로 적고 있지만, 간본의 ‘漏’를 잘못 인식한 것이다. 관련 문장은 “若生法愛，卽便頂墮，不得進入忍法，成世第一法，發眞無滿也。”²⁸⁾이다. 번역하자면, “만약 법애를 일으키면, 곧 ‘頂墮’이니, 忍法에 진입하여 世第一法을 이루어 眞無漏를 발할 수 없다” 정도가 된다. 여기서는 삼승의 십승관법 중 열 번째 ‘無法愛’를 설명하는 대목으로, 사선근위를 거쳐 ‘眞無漏’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당연히 ‘漏’가 되어야 한다.²⁹⁾

③의 경우, <표2>의 4개소가 해당한다. 이는 제본이 모두 같이 적고 있거나 다소 상이점이 있지만, 논자가 판단해서 논자가 제본과는 다른 글자로 고친 경우이다.

<표2>의 32 妄境→妄境破妄境의 경우는 교감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해당되는 『대정장』의 관련 문장은 “次明破諸法遍者，若不破見思兩輪所執④妄境，⑤不遍則止觀有滯也。”³⁰⁾이다. 곧 삼승의 십승관법을 차례로 설명해 나가는 중 네 번째 파법편을 설명하는 구문이다. 여기서 『대정장』대로 번역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송본은 ‘④妄境’ 뒤, ‘⑤不遍’ 앞에 ‘妄境’을 두 글자를 보충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도 “…… 망경이 두루하지 않으면 지관에는 막히는 것이 있다”라고 번역되어 ‘破法遍’의 설명과 부합

26) 『현소』 권2(T.38, 524b27-c28) 참조.

27) 『현소』 권2(T.38, 528c2-3)

28) 『현소』 권2(T.38, 530a5-7)

29)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도 <표2>의 25 列→卅, 28 文→又 역시 『대정장』과 『만속장』이 완전히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감범위를 『현소』 권1~권2에 한정하였고 아직 권3~권6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예가 계속 확인된다면 『대정장』이 『만속장』을 참조하여 조판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0) 『현소』 권2(T.38, 529c18-20)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충된 ‘妄境’ 두 글자 앞에 ‘破’자가 보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만약 견혹과 사혹의 두 축이 집착하는 망경을 깨뜨리지 않고, 망경을 깨뜨리는 것이 두루하지 않으면 지관에는 막히는 것이 있다”라고 번역되어 의미가 통한다. 이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전거는 『삼관의』의 문장이다.³¹⁾ 『삼관의』에서는 ‘妄境’을 ‘妄想’이라고 적고 있는 것 외에는 논자가 교감한 문장과 동일하다.

2) 교감의 의의

교감을 통해 교학적인 내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원문 교감의 의미 있는 성과로 향후 관련 연구나 역주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다. 여기서는 ① 송본 및 사본에 의거해 교정한 경우, ② 사본에 의거해 교정한 경우, ③ 논자가 판단해서 제본과 다르게 교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① 송본 및 사본에 의거해서 교정한 경우이다. <표2>의 7 所→初는 이미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는 글자로,³²⁾ 송본이나 사본과 같이 ‘初’가 되어야 한다. 『대정장』의 관련 문장은 “生滅無生滅因緣，即是所觀之境。無量因緣，即是第二觀境。無作因緣，即是第三觀境。”³³⁾이다. 곧 지의교학의 핵심 골격인 화법사교 각각에 대응하는 네 가지 십이인연을 세 가지 관에 배대하고 있는 대목이다. 무량인연은 별교의 관인 從空入假觀의 두 번째 관의 대상, 무작인연은 원교의 관인 中道第一義諦觀의 세 번째 관의 대상이라고 설명되기 때문에, 생멸과 무생멸은 장교와 통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단순한 ‘관의 대상’이라는 의미인 ‘所觀’이 아니라, 장교와 통교의 從假入空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첫 번째 관’을 의미하는 ‘初’가 되어야 한다.

② 사본에 의거해서 교정한 경우이다. <표2>의 8 智→境智의 경우, 『대정장』의 해당 구문은 “若言境自是境，即是自性境。若言由智故說境，即是他性境。若言境智故說境，即是自他性境。若離智故說境，即是無因緣而說境。”³⁴⁾이다. 곧 境과 智의 관계를 自·他·共·無因의 사불생의 논법으로 깨뜨리는 구문이다. 境 자체가 境이라면 自성이 되고, 智로 인해 境이라고 한다면 곧 他성이 되고, 境과 智가 모두 원인이 된다면 自他性 즉 共生에 빠진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無因生을 설하고 있다. 교감 관련 문장

31) 『三觀義』 권2(X.55, 675c:21-22), “次明破諸法遍者，若不破見思兩輪所執妄想，破妄想不遍，則止觀有滯也。”

32) 菅野博史 2012, 312.

33) 『현소』 권2(T.38, 525a:21-23)

34) 『현소』 권2(T.38, 525a:26-29)

은 마지막 무인생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智**뿐만 아니라 **境**도 같이 언급되어야 **自**와 **他** 양쪽을 떠난 무인생이 성립한다. 따라서 사본에 의거해 **境**을 보충하는 것이 옳다.

〈표2〉의 15 愛愛→受受의 관련 문장은 “根塵相對，則意觸因緣生愛。愛生者即是身見意識生也。”³⁵⁾이다. 곧 **根**과 **塵**, **觸**이 화합해서 **受**를 발생시킨다는 삼사화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愛’는 ‘受’로 교정되어야 한다.

〈표2〉의 37 等→第, 38 修→種은 하나의 문장에서 발생한 두 오류이다. 관련 문장은 “不思議解脫品，即是等三觀修智之果。住於正道，雙照二諦，種種示現。”³⁶⁾이다. 삼관으로 『유마경』의 각 품의 교상을 해석해 나가는 중 「부사의해탈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문이다. 여기서 기존의 원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의미도 통하지 않거니와 교상과도 어긋난다. 「부사의해탈품」은 사실단으로는 제일의실단에 해당하고³⁷⁾, 사교로는 원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³⁸⁾ 따라서 ‘제삼관’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일체중지의 ‘중지’가 되어야 한다.

③ 논자가 판단해서 제본과 다르게 교정한 경우이다. 〈표2〉의 18 不生生→生不生은 지의가 화법사교의 경증으로 드는 『열반경』의 사중불가설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다. 곧 장교의 경우 生生不可說, 통교의 경우 生不生不可說, 별교의 경우 不生生不可說, 원교의 경우 不生不生不可說이 대응한다.³⁹⁾ 이 네 가지 불가설과 화법사교 각각의 대응 관계는 『현소』뿐 아니라, 『법화현의』⁴⁰⁾, 『마하지관』⁴¹⁾ 등 지의의 대표적 저작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통교의 體假入空觀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문구이다. 즉, “……是觀因緣即空，不生生無生四諦，入空之觀。其功齊此。亦名一切智，亦名慧眼也。”⁴²⁾라고 한다. ‘觀因緣即空’, ‘無生四諦’, ‘一切智’, ‘慧眼’은 모두 통교의 교상과 수행과보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중불가설로 설명하자면 ‘生不生’이 되어야 한다.

유사한 경우로, 〈표2〉 21 生不生→不生生の 경우도 그렇다. 원문은 “菩薩從空入假

35) 『현소』 권2(T.38, 526c21-22)

36) 『현소』 권2(T.38, 532a13-15)

37) 『현소』 권1(T.38, 524a12-13), “後一番悉檀起不思議解脫品.”

38) 『현소』 권4(T.38, 545a15-16), “不思議品，正明住圓教不思議果，示現四教之事也.”

39) 『현소』 권1(T.38, 521c8-522a4) 참조.

40) 『妙法蓮華經玄義』 권3(T.33, 709c7-10) 참조.

41) 『摩訶止觀』 권5(T.46, 61b27-c7) 참조.

42) 『현소』 권2(T.38, 527c4-6)

修證, 卽是觀因緣假, 名生不生, 無量四諦, 亦名道種智, 亦名法眼.”⁴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별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따라서 ‘生不生’이 아닌 ‘不生生’이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교감에 따라 의미가 바뀌거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더 이상의 검토는 생략한다. 이와 같이 교감을 통한 원문에 대한 연구는 『현소』를 정확히 읽어나기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미노부산 문고 소장 사본에 대해

1. 형태적 사항

미노부산문고 소장 『현소』는 권1~권2만 남아 있는 잔결본으로, 권1~권2가 합본되어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있다. 서책 형태는 線裝이고,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28.5cm이며, 표지에는 ‘唯廣疏 第一’이라고 쓰여 있다.

권1의 찬호는 “天台智者顓禪師作”이라고 되어 있다. 권수제는 “維摩詰經玄疏卷第一”, 미제는 “維摩經玄疏卷第一”이라고 적고 있다. 권2는 찬호를 기록하지 않고, 권수제는 “維摩經玄疏卷第二”, 미제는 “維摩經玄義第二”로 되어 있다. 미제의 끝에는 “本化門人 釋 睿朝日豐”이라고 전승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日豐은 미노부산 제47세인 亮心院 日豐(1713~1786)을 가리키며, 『현소』는 그의 장서로 추정된다.⁴⁴⁾ 각 권의 찬호, 권수제를 현행본과 비교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현행본과 미노부산 소장본 권1의 찬호·권수제·미제의 비교

		현행본	미노부산 소장본
권1	찬호	天台山修禪寺沙門智顓撰	天台智者顓禪師作
	권수제	維摩經玄疏卷第一	維摩詰經玄疏卷第一
	미제	維摩經玄疏卷第一	維摩經玄疏卷第一

43) 『현소』 권2(T.38, 528a10-12)

44) 日豐에 대해서는 日蓮宗事典刊行委員會編 1981, 685 참조.



〈표 4〉 현행본과 미노부산 소장본 권2의 찬호·권수제·미제의 비교

		현행본	미노부산 소장본
권2	찬호	天台山修禪寺沙門智顓撰	없음
	권수제	維摩經玄疏卷第二	維摩經玄疏卷第二
	미제	維摩經玄疏卷第二	維摩經玄義卷第二

본문은 계선이 없고, 기존 간본과 같이 1페이지 당 10행, 1행 당 20자로 필사되어 있는데, 몇몇 부분에서 1~2자 정도의 차이는 보인다. 행수와 자수는 간본과 같지만, 간본의 경우 큰 과단을 나열하며 제시할 때는 행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본 사본에서는 전혀 구분하지 않고 필사되어 있다. 카에리텐(返り点)과 오쿠리가나(送り仮名)와 같은 부호가 부기되어 있지만, 상세하지는 않고 기존의 간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전체에 걸쳐 부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에 있었던 부호를 그대로 필사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본으로 공부한 흔적으로 생각된다. 본문은 전반적으로 손상이 많은데, 특히 蟲損이 매우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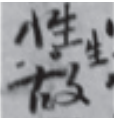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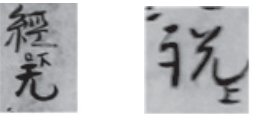
글자는 대개 해서와 행서를 사용하고 있다. 몇몇 글자는 초서로 보이기도 한다. 동일한 글자가 이어질 경우는 ‘々’를 사용하기도 하고, ‘涅槃’, ‘菩提’ 등의 불교용어를 사용할 때는 습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사본에서 사용되는 합자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표 5〉 본사본의 합자의 예

열반	
보리	
보살	

필체는 권1의 후반부와 권2의 중반부에서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두 명 이상 복수의 인물에 의해 필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필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삭제, 보입, 수정, 순서를 바꾸는 표시를 통해 교정하고 있다. 글자를 삭제할 때는 해당 글자를 먹칠해서 삭제하고, 보입할 경우에는 위의 글자와 아래 글자 사이, 보입될 위치 오른쪽 공간에 작게 부기하고 있다. 본 사본에서 글자가 아닌 문장을 보입하는 경우가 한 군데 발견되는데, 이 경우에는 행간에 적고 있다. 글자를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글자 바로 옆에 수정 글자를 작게 적고, 순서를 바꿀 때는 서로 바꿀 글자의 오른쪽 하단에 下, 上을 작게 적어 글자의 선후를 표시하고 있다. 본 사본에서 삭제, 보입, 수정, 순서를 바꾸는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6〉 본사본의 삭제·보입·수정·순서바꿈의 예

		비고
삭제		
보입		'性'과 '故' 사이에 '生' 보입
수정		起→赴; 即→是
순서바꿈		“更有破群那②經, ①無人得觸, 無人得受. 此意正爲◎說破執生信增長善根.”에서 ②와 ① 사이에 ◎를 옮김

이 외 본 사본의 본문에서는 朱點과 朱線, 朱字가 부기되어 있다. 주선의 경우, 세 부 과단이 바뀌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주자는 ‘聞慧四句’, ‘六種不可說’, ‘性相二空’ 세 군데가 확인된다. 즉 관련된 본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주점의 경우, 글자 사이에 찍어 구두점을 나타내거나 몇몇 문장에서 강조를 표시하기 위해 복수의 글자 오른쪽 옆에 찍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사본에

서 사용되는 주점, 주선, 주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7〉 본사본의 주점·주선·주자의 예

주점			
주선			
주자			

미제가 끝난 뒤에는 2페이지에 걸친 필사 내용이 보충되어 있다. 이는 권2, 『대정장』에 기준한다면 525b2 “不從……”부터 525b26 “……海也”까지의 문장이 필사 과정에서 결락되었고, 이것을 마지막에 보충하고 있는 부분이다.

본 사본은 필사년도 및 저본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시기와 저본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권수제와 서명이 기존 간본과 일치하지 않고, 카에리텐과 오쿠리가나 등이 역시 간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간본을 필사했던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교감 결과를 토대로 본 사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내용의 의의

1) 현존 제본과 비교하여

상술했듯이 본 사본은 간기도, 필사년도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저본으로 삼았는지, 또 언제 성립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내용적으로도 현행 제본과 비교해 보면 결락된 부분, 착간, 오탈자가 상당히 많아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검토했던 교감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사본의 계통을 유추할 수는 있다. 우선 현행본과 本純이 교감한 송본과의 상이점에 입각해서 본 사본과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현소』 권1~권2에서 本純이 송본으로 교감하고 있는 내용은 권1에서 10회, 권2에서 20회 도합 30회이다. 곧 제II장에서 제시했던 권1의 <표1>에서, 1, 2, 4, 5, 6, 7, 8, 9, 10, 11이고, 권2 <표2>에서는 1, 3, 5, 6, 7, 10, 11, 12, 13, 16, 22, 26, 27, 29, 30, 31, 32, 34, 35, 39이다. 여기서 권1의 경우, 사본에서 결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10’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송본과 사본이 일치하고 있다. 권2의 경우는 결락된 부분이 13, 불일치하는 경우가 12, 22, 26, 32의 네 군데이다. 이 다섯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송본과 일치한다.

권2에서 불일치하는 경우는 12析-折, 22比-此, 26珠-殊, 32妄境-妄境-妄境의 네 군데인데, 12, 22, 26의 경우, 양 글자가 서로 비슷한 글자이기 때문에 필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기이고, 32의 경우 ‘妄境’이라는 한 단어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역시 누락되기 쉬운 부분이다. 본 사본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본 사본은 권1의 경우 송본과 모두 일치하고 권2의 경우에도 일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교감 결과로 미루어 보면, 본 사본은 송본 계통으로 분류되며, 현행본과 다른 계통의 『현소』를 필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證眞의 『維摩玄略鈔』에 대비하여

여기서는 『현소』의 주석서에 대비하여 본 사본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현행의 『현소』가 모두 江戸時代 간본을 기준으로 한 동일계통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작성되었던 주석서의 경우 현행본과 다른 계통의 문헌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석 과정에서 현행본과 다른 문구를 주석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는 본 사본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비교 요소가 된다.

『현소』의 주석서로는 道暹(생몰년 미상)의 『維摩玄疏記』, 證眞(12세기경)의 『維摩玄略鈔』 1권(이하 『약초』), 本純(1702~1769)의 『침록』 3권이 확인된다. 이 중 證眞의 『약초』와 本純의 『침록』만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 천태종 제9조 담연(711~782)의 제자인 道暹이 찬술한 『유마현소기』는, 현존하지 않지만 몇몇 장소목록에서 확인되며⁴⁵⁾, 證眞의 『약초』에서 38곳에 걸쳐 “暹云……”으로 인용되고 있으므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道暹을 제외한 證眞과 本純은 모두 일본에서 활약한 승려이다. 따라서 『현소』의 연구는 일본에서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45) 『天台宗章疏』 卷1(T.55, 1136b1) ; 『東域傳燈目錄』 卷1(T.55, 1151b19)

이 중 本純의 『침록』은 그 저본이 현행의 간본이다. 이는 『침록』이 인용하는 『현소』의 문구가 현행본과 일치한다는 점, 『침록』에서 송본과 교감한 내용을 주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本純의 교감 내용이 頭註에 반영된 『재교유마경현의』가 기존 간본을 복각한 것이라는 점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本純이 송본으로 교감한 내용이 상당 부분 본 사본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검토했다. 여기서는 本純의 『침록』보다 성립 시기가 이른 證眞의 『약초』를 통해 본 사본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본 사본은 證眞의 『약초』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특이사항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證眞의 생몰년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 平安 말기에서 鎌倉 초기까지 활약했던 인물로 추정되며, 『약초』의 찬술 시기 역시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證眞은 『유마경문소』의 주석서인 『유마경소사기』도 남기고 있는데, 『유마경소사기』에서 安元3年(1177)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⁴⁶⁾, 그 전후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초』는 『현소』 권1의 10군데, 권2의 17군데, 권3의 18군데, 권4의 17군데, 권5의 17군데, 권6의 7군데, 도합 81곳의 문구를 인용하며 주석을 붙이고 있다.

이미 지적되었듯이⁴⁷⁾, 證眞의 『약초』에서는 현행의 『현소』와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 따라서 證眞이 참조했던 『현소』는 현행본과는 다른 계통일 가능성이 높다. 그 중 이미 지적되었던 권2의 관련 문장은 현행본에서 “問曰. 若說生生, 可是自性生, …… 何得言是他性也.”⁴⁸⁾로 되어 있다. 證眞은 질문의 첫 부분을 “若說生生不可是自性生”이라고 인용한 뒤, “應云, 可是自性, 是不字剩.”⁴⁹⁾라고 하며 ‘不’자를 ‘剩字’라고 주석하고 있다. 곧 證眞이 봤던 본에는 현행본과 달리 ‘不’자가 덧붙여져 있었던 것이다. 사본의 이 부분은 현행본이 아니라 證眞이 인용하는 문장과 동일하게 ‘不’자가 덧붙여져 있다.(제2장 <표2> 17 참조.)

지적되었던 것 외에도 『현소』 권2에 대한 證眞의 주석에서 현행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 현행본의 해당 원문은 “問曰. 若境是境, 境可是自性境. 今待智故說境, ④何得是他性境也.”⁵⁰⁾로 되어 있다. 證眞은 이 구문 가운데 ④부분을 “……何得不是他性境也.”라고 인용한 뒤, “今文恐誤. 應云, 何得是他性境也. 不字剩耳.”⁵¹⁾라고

46) 『維摩疏私記』 권1(『日藏』 권7, 327a8)

47) 山口弘江 2017, 96-97. 참조. ; 山口弘江은 證眞의 『약초』에서 현행본과 어긋나는 곳을 권2의 1군데, 권5의 1군데 총 2군데를 지적하고 있다. 논자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더해 권2의 1군데가 더 확인된다.

48) 『현소』 권2(T.38, 527a18-19)

49) 『維摩玄略鈔』 권1(『日藏』 권7, 319b3-4)

50) 『현소』 권2(T.38, 525b9-10)

51) 『維摩玄略鈔』 권1(『日藏』 권7, 318a7-10)

주석한다. 역시 전례와 같이 證眞이 봤던 본에는 ‘不’자가 덧붙여져 있었던 것이다. 이 역시 사본의 해당부분은 현행본이 아닌 證眞이 봤던 본과 같이 ‘不’자가 덧붙여져 있다.(제2장 <표2> 9 참조)

이러한 예로 비추어 볼 때, 미노부산 소장 사본은 기존 간본과 다른 계통의 서책을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證眞이 보았던 『현소』와 같은 계통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된다. 향후 더 깊이 검토할 여지는 남아 있다.

IV. 결론

이상으로 『현소』 권1~권2에 대해 현행하는 제본과 미노부산 문고 소장 사본의 교감한 결과를 제시하고 검토했다. 아울러 미노부산 소장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개설했다.

교감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정장』과 『만속장』, 그리고 두 대장경이 저본으로 삼고 있는 간본의 문제점들은 상당수가 本純이 주석을 남기고 있는 송본과 미노부산 소장 사본에 의거해 교감이 가능한 것을 검토했다. 이어서 『대정장』과 『만속장』의 편자가 조판 과정에서 잘못 인식한 글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바로잡았다. 마지막으로 현존 제본이 모두 동일하게 적고 있거나 다르게 적고 있지만, 문맥과 교학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로 생각되는 몇몇 글자와 구문들은 논자가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미노부산 소장 사본에 대해서는 간략한 개설과 함께 교감 결과를 토대로 문헌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서명이나 제목 등이 기존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교감 결과에서 드러났듯 상당수가 本純이 주석을 남긴 송본과 일치한다는 점, 證眞의 『약초』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소』의 원문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엔 부족하지만, 기존에 유통되던 간본과는 그 계통이 다른 것을 필사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본 사본은 현행본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오탈자와 착간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본 그 자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향후 더욱 더 깊은 검토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권3~권6에 해당하는 사본이 발견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부록】으로는 『현소』 권1~권2 현존제본과 미노부산 소장본의 전체 교감표를 제시한다. 범례는 II장을 참조바란다.

【부록】

〈표 1〉 T38 『현소』 권1과 제본의 비교 및 교정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1	519a7	自	自	自		日	自
2	a8	議	議	議		義	議
3	a12	卽	卽	卽		卽五	卽
4	a13	五重	五重	五重		重	五重
5	a20	非名言	非名言	非名言		非言名	非名言
6	a24	出體	出體	出體		出經體	出(經)體
7	a28-29	異同故	異同故	異同故		同異	異同故
8	519b2	不可	不可	不可		不	不(可)
9	b4	人	人	人	者	者	者 『유마경』
10	b6	爲體	爲體	爲體		卽經體	爲體 (卽經體)
11	b7	演答	演答	演答		~ 答	演答 ~는 공백
12	b10	人法	人法	人法		之	人法
13	b11	有同異	有同異	有同異		有同有異	有同(有)異
14	b12	初	初	初		問初	初
15	b16	之	之	之		々	之
16	b18	別別別	別別別	別別別		別別	別別別
17	b19	卽	卽	卽		卽是	卽(是)
18		卽是	卽是	卽是		卽卽是	卽是
19	b21	之	之	之		云	之
20	b22	玄	玄	玄		異	玄
21	b25	而爲	而爲	而爲		何爲	而爲
22	b26	境	境	境		境界	境(界)
23	519c5	又如	又如	又如		又	又如
24	c9	法性	法性	法性		法	法性
25	c11	用	用	用		用心	用
26	c14	求也	求也	求也		求	求(也) 사본, 종결조사 '也' 결락 이하다수
27	c16	身	身	身		示	身 『대지도론』
28	c20	有多	有多	有多	多	多	多 『대지도론』
29	c22	智慧	智慧	智惠		惠	智慧 『대지도론』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30	c28	義	義	義		義意	義
31	520a3	涅槃	涅槃	涅槃		涅槃經	涅槃(經)
32	a4	是蟲	是蟲	是蟲		是蟲食	是蟲 『열반경』
33	a6	復滅	復滅	復滅		滅	復滅
34	a23	唯佛	唯佛	唯佛		佛唯	唯佛 『인왕경』
35	a24	約	約	約		得	約 이하다수
36	a25	門	問	問		問	問
37		之人	之人	之人		之	之人
38	a26	濫	濫	濫		監	濫
39	a28	乘	乘	乘		我	乘
40	a29	乘	乘	乘		我	乘
41	520b1	約	約	約		得	約
42		濫	濫	濫		監	濫
43	b5	羅詰	羅詰	羅詰		詰	(羅)詰 維摩(羅)詰
44	b6	羅詰	羅詰	羅詰		詰	(羅)詰 維摩(羅)詰
45	b8	勸修	勸修	勸修		勸進修	勸修
46	b10	檀也	檀也	檀也		旦	檀 檀=旦 이하 동
47	b11	經教	經教	經教		經教相	經教
48		判	判	判		對	判
49		也	也	也		七	也
50	b15	釋	釋	釋	譯	譯	釋
51	b17	釋	釋	釋	譯	譯	釋
52	b21	翻宗	翻宗	翻宗		翻云宗	翻(云)宗
53	b22	如是異翻	如是異翻	如是異翻		異翻	如是異翻
54	b24	攝	攝	攝	稱	稱	稱
55	b25	翻	翻	翻		翻翻	翻
56	b29	正四	正四	正四		四正○	正四
57	520c6	二各	二各	二各		名/各	二各
59	c11	檀	壇	壇	檀	旦	檀
60	c13	心觀	心觀	心觀		心	心觀
61	521a11	輕但	輕但	輕但		新從	輕但
62	a16-17	但赴欲樂	但赴欲樂	但赴欲樂		從起樂欲	但赴欲樂
63	a18	後	後	後		故	後
64		佛	佛	佛		何	佛
65	a20	數息觀	數息觀	數息觀		品息	數息觀 『열반경』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66	a20-21	浣衣	浣衣	浣衣		洗者	浣衣	『열반경』
67	a21	不淨觀	不淨觀	不淨觀		骨觀	不淨觀	『열반경』
68	a25	經中	經中	經中		經	經(中)	
69	521b13	興	興	興		興	興	
70	b14	正	正	正		故	正	
71	b17	而	而	而		而聽	而	
72	b23	精進	精進	精進		精進々々	精進	
73	b25	沈	沈	沈		說	沈	
74	b26	爲	爲	爲		分	分爲	
75	b28	利智	利智	利智		智	利智	
76	521c1	卽	卽	卽		良	卽	이하다수
77	521c4	卽	卽	卽		良是	卽(是)	
78	c7	杜	杜	杜		咄	杜	
79		卽	卽	卽		良	卽	
80		四不	四不	四不		不	四不	
81	c8	生不生	生不生	生不生		不生生	生不生	
82	c9	不生生	不生生	不生生		生不生	不生生	
83	c10	生	生	生		得生	生	
84	c14	赴	赴	赴		起	赴	
85	c15	之四教也	之四教也	之四教也		云教	之四教也	
86	c19	赴	赴	赴		起	赴	
87		緣法	緣法	緣法		緣	緣(法)	
88	c20	諸	諸	諸		說	諸	
89	c23-24	生不生	生不生	生不生		不生生	生不生	
90	c24	赴	赴	赴		起	赴	
91	c25	說約	說約	說約		說	說約	
92		教教	教教	教教		教	教教	
93	c28	不生生	不生生	不生生		生不生	不生生	
94	c29	赴	赴	赴		起	赴	
95		成	成	成		所成	(所)成	
96	522a1	教教	教教	教教		教	教教	
97	a3	赴	赴	赴		起	赴	
98	a6	部乎	部乎	部乎		部	部乎	
99		但	但	但		位	但	
100		利	利	利		和	利	
101	a7	悉	悉	悉		四悉	悉	
102		赴	赴	赴		因	赴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103	a9	部經	部經	部經		經	部經	
104	a11	說法	說法	說法		說	說法	
105	a16	宜聞直說	宜聞直說	宜聞直說		直聞宜說	宜聞直說	
106	a17	界名	界名	界名		間名	界名	
107	a19	記世	記世	記世		託世	記世	
108	a22	經	經	經		經經	經	
109	a23	結成	結成	結成		結	結成	
110	a29	解者	解者	解者		解	解者	
111	522b2	言	言	言		言經	言	
112		之	之	之		云	之	
113	b3	攝得	攝得	攝得		攝	攝(得)	
114	b12	門門	門門	門門		門	門門	
115		名能	名能	名能		亦能	名能	
116		諸波	諸波	諸波		諸	諸波	
117		名	名	名		多	名	
118	b13	卽是	卽是	卽是		卽	卽(是)	
119	b15	治門	治門	治~門	治門	治門	~는 공백	
120	b16-17	也+16字	也+16字	也+16字		也	也+16字	
121	b19	赴	赴	赴		起	赴	
122	b21	圓	圓	圓		○頓	圓(頓)	
123	b24	但	但	但		位	但	
124	b25	赴	赴	赴		起	赴	
125	b26	性	性	性		姓	性	
126		赴	赴	赴		起	赴	
127	b28	悉檀	悉檀	悉檀		旦	悉檀	
128		赴緣說	赴緣說	赴緣說		說起緣	赴緣說	
129	b29	教	教	教		悉教	教	
130	522c1	赴	赴	赴		起	赴	
131	c3	赴	赴	赴		起	赴	
132	c6	爾	爾	爾		示	爾	
133	c9	名名	名名	名名	名	名	名	衍字
134	c10	問曰	問曰	問曰		問	問曰	
135	c11	今	今	今		令	今	『대지도론』
136		訶	訶	訶		訶薩	訶	
137	c13	三藏	三藏	三藏		藏	三藏	
138		少	少	少		小	少	
139	c19	後	後	後		故	後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140	c20	小	小	小		少	小
141		赴	赴	赴		起	赴
142	c23	婆沙	婆沙	婆沙		婆婆	婆沙
143	c26	訶	訶	訶		呵	訶
144	c28	我欲正	我欲正	我欲正		我今正欲	我欲正
145		成論	成論	成論		成實論	成(實)論
146	523a5	大智度論	大智度論	大智度論		大智論	大智(度)論
147	a10-11	造+19字	造+19字	造+19字		造	造+19字
148	a10	人天	人天	人天	天人	결락	人天
149	a12	人作	人作	人作		人	人(作)
150	a14	聲聞	聲聞	聲聞		聲	聲
151		示	示	示		是	是(示)
152		伏犧	伏犧	伏犧		伏羲	伏犧
153	a18	赴	赴	赴		起	赴
154		此土	此土	此土		此云	此土
155	a19	垂裕後昆	垂裕後昆	垂裕後昆		長裕故毗	垂裕後昆
156	a21	小	小	小		小過	小
157	a23	何得	何得	何得		何	何得
158		此皆	此皆	此皆		此	此皆
159	a24	非	非	非		起	非
160		世	世	世		世界	世
161	a26	但	但	但		ㄷ	但
162	a27	高	高	高		尊	高
163		五	五	五		第五	五
164	a28	思益	思益	思益		益	思益
165	523b7	卽是	卽是	卽是		是卽	卽是
166	b8	起	起	起		也	起(也)
167		聖默然	聖默然	聖默然		聖默	聖默(然)
168	b9	利	利	利		利益	利(益)
169		聖默	聖默	聖默		默	(聖)默
170	b10	赴	赴	赴		起	赴
171	b11	不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生不生 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172	b12	三	三	三		二	三
173		一	一	一		一切	一
174		赴	赴	赴		起	赴
175	b13	卽	卽	卽		退	卽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176	b14	赴	赴	赴		起	赴	
177	b15	生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生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生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生々不々 々不生々 々々々	生生不生 不生不生 不生	
178	b16	赴	赴	赴		起	赴	
179	b17-18	聖諦	聖諦	聖諦		諦	(聖)諦	
180		生不生不 生生不生 不生	生不生不 生生不生 不生	生不生不 生生不生 不生		不生々々 不生不生 不生	生不生不 生生不生	
181	b19	赴	赴	赴		起	赴	
182	b21	般涅槃	般涅槃	般涅槃		涅槃	(般)涅槃	
183	b22	赴	赴	赴		起	赴	
184		聖說	聖說	聖說		聖說法	聖說(法)	
185	b24	生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生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生生不生 不生不生 不生不生		生々不生 々々々々 々々々々	生生不生 不生不生 不生	
186	b25	默然	默然	默然		默	默(然)	
187	b27	悉檀赴	悉檀赴	悉檀赴		旦起	悉檀赴	
188	523c1	如	如	如		常如	如	
189	c2	無說	無說	無說		然無常	無說	
190		問曰	問曰	問曰		問	問曰	
191		取	取	取		聖	取	
192	c4	此經	此經	此經		經此	此經	
193	c5	然是	然是	然是		是	(然)是	
194	c6	否	否	否		不	否	
195		默問	默問	默問		默然問	默(然)問	
196	c7	而	而	而		而爲	而爲	뒤동일문장
197		歎	歎	歎		難	歎	
198	c8	聖默然	聖默然	聖默然		默然	(聖)默然	
199	c9	聖默然	聖默然	聖默然		默然	(聖)默然	
200	c10	被	被	被		彼	被	
201	c16	觀	觀	觀		覘	觀	이하다수
202		已	已	已		以	已(以)	
203	c18	志	志	志		者	志	
204	c20	于	于	干	于	于	于	
205		惟	惟	惟		經	惟	
206	c21	外	外	外		解	外	
207	c27	性	性	性		性住	性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208	c28	白色相	白色相	白色相		色自相	白色相
209	c29	相開	相開	相開		開	相開
210		終不見 白相	終不見 白相	終不見 白相		修見白	終不見白相
211		譬	譬	譬		正○	譬
212	524a2	相也	相也	相也		相說也	相也
213	a3	不相	不相	不相		相	不相
214	a4	講	講	講		稱	講
215	a16	行品	行品	行品		品	行品 『유마경』
216	a18-20	問+33字	問+33字	問+33字		問+52字	問+33字 착간
217		以	以	以		已	以
218	a23	亦	亦	亦		六	亦
219		室外說	室外說	室外說		室亦在室 外說	室外說

〈표 2〉 T38 『현소』 권2와 제본의 비교 및 교정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1	524b6	二別	二別	二別		二	二別
2	b7	所說標名	所說標名	所說標名		名	所說標名
3	b8	字	字	字		号	字
4	b13	別名	別名	別名		名別	名別
5		同趣	同趣	同趣		聞	同趣
6	b14	名	名	名		名一	名
7	b21	登	登	登	位登	位登	位登
8	b23	毘	毗	毘		略	毘
9	b25	翻釋名義	翻釋名義	翻釋名義		翻名釋義	翻名釋義
10	b26	淨	淨	淨		辨淨	淨
11	524c1	翻爲	翻爲	翻爲		翻	翻(爲)
12	c3	〈光師〉	〈光師〉	〈光師〉		〈師〉	〈光師〉
13	c4	〈三藏〉	〈三藏〉	〈三藏〉		〈藏〉	〈三藏〉
14	c5	翻爲	翻爲	翻爲		翻云	翻爲(云)
15	c6	以對眞	以對眞	以對眞		眞	以對眞
16	c7	普聞	普聞	普聞		普門	普聞
17	c12	報智	報智	報智		種智	報智
18		無有	無有	無有		無	無(有)
19	c15	度	度	度		度	塗
20	c16	有	有	有	在	在	在
21	c17	如	如	如		而	如
22	c19	豈	豈	豈		堂	豈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23		偏	偏	偏	偏	偏	
24		諦之開	諦之開	諦之開		諦開	諦之開
25	c20	可	可	可		所	可
26	c21	性者	性者	性者		性	性(者)
27	c22	本淨		本淨		淨	本淨
28	c24	幻	幻	幻		約	幻
29	c25	像	像	像		緣	像
30	c26	菩提	菩提	菩提		菩	菩提
31	c28	六	六	六		六六	六
32	525a2	障	障	障		諦	障
33	a15	生無因緣	生無因緣	生無因緣		生	生無因緣
34	a22	所	所	所	初	初	初
35	a23	約	約	約		初	約
36	a25	問	問	問		問曰	問(曰)
37	a26	智	智	智		智故	智(故)
38	a28	智	智	智		境智	境智
39	525b2	生	生	生		性	生
40	b3	言由	言由	言由		說言由	(說)言由
41	b4	因	因	因		因性	因
42	b7	垢	垢	垢		境	垢
43	b10	何得	何得	何得		何得不	何得
44	b16	墮	墮	墮		隨	墮
45	b17	非不	非不	非不		非	非不
46	525c8	者觀	者觀	者觀		者	者觀
47		掘	拙	拙	掘	掘	掘
48	c11	直	直	直		道	直
49	c14	義	義	義	之義	之義	之義
50	c21	恒	恒	恒		塵	塵(恒)
51	c23	觀	觀	觀		觀相	觀
52		經	經	經		經云	經
53	526a1	破	破	破		破/故	破(故)
54	a4	故此	故此	故此		故	故此
55	a5	使使	使使	使使		使	使使
56	a9	三界無別	三界無別	三界無別		無別無別	三界無別
57	a10	從	從	從		若	從
58	a12	待	待	待		待待	待
59	a21	折	折	折	析	折	析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60	a27	差	差	差		者	差
61	a28	中	中	中		中觀	中(觀)
62	526b1	斷	斷	斷		斷斷	斷
63	b3	摩訶衍道	摩訶衍道	摩訶衍道		없음	(摩訶衍道)
64	b12	卽折非	卽折非	卽折非		前折	
65		折假	折假	折假		折	折假
66	b13	隣虛	隣虛	隣虛		隣	隣虛
67	b14	大	大	大		大無	大
68	b16	盡還	盡還	盡還		盡	盡(還)
69	b18	若細	若細	若細		細	(若)細
70		知	知	知		智	知
71	b25	折見	折見	折見		折見折見	折見
72	b28	滅細	滅細	滅細		滅相破龜	滅細
73	526c1	也	也	也		耶	也(耶)
74	c45	漏+20字	漏+20字	漏+20字		漏	漏+20字
75	c6	行陰行陰	行陰行陰	行陰行陰		行陰	行陰行陰
76		此	此	此		此人	此
77	c9	皆	皆	皆		智/知	皆
78	c11	道+8字	道+8字	道+8字		道	道+8字
79		非	悲	悲	非	결략	非
80	c13	觀	觀	觀		觀何	觀
81	c14	塗	塗	塗		途	途
82	c21	愛愛	愛愛	愛愛		受受	受受
83	c22	今觀	今觀	今觀		今	今觀
84	c23	意法	意法	意法	爲法	爲法	爲法
85		爲根	爲根	爲根		根	爲根
86	c24	自性生	自性生	自性生		自性性	自性生
87		根塵	根塵	根塵		若根塵	若根塵
88	c25	從	從	從		卽從	(卽)從
89	c26	中	中	中		中觀	中(觀)
90	c29	但是	但是	但是		但	但(是)
91	527a6	相	相	相		是相	(是)相
92	a8	是滅	是滅	是滅		滅	是滅
93	a9	自性生	自性生	自性生		自性	自性生
94	a10	若生滅	若生滅	若生滅		滅	若生滅
95		共性	共性	共性		共生	共生
96	a11	得	得	得		說	得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97	a18	生可	生可	生可		生不可	生可
98	a19	非生	非生	非生		非	非生
99	a20	生若稱自	生若稱自	生若稱自		生稱自性	生若稱自
100		是自	是自	是自		是是自	是自
101	a24	墮	墮	墮		隨	墮
102	a26	爲生不生	爲生不生	爲生不生		生○生	爲生不生
103	527b2	不他性生	不他性生	不他性生		不他性	不他性生
104		非不	非不	非不		非不不	非不
105	b6	假生	假生	假生		假名生	假(名)生
106	b8	可	可	可		所	可
107	b10	已	已	已		也	已
108	b19	四見不可	四見不可	四見不可		없음	四見不可
109	b21	經云	經云	經云		云	(經)云
110	b26	般	般	般		彼	般
111	b27	斷	斷	斷		斷卽	斷
112		也	也	也		世	也
113	527c4	卽	卽	卽		良	卽
114	c4-5	不生	不生	不生		不生	生不生
115	c5	功	功	功		巧	功
116	c6	亦	亦	亦		品	亦
117	c7	修	修	修		없음	修
118	c10	入假	入假	入假		假入	入假
119	c11	墮	墮	墮		隨	墮
120	c12	恒	恒	恒		恒河	恒(河)
121	c13	墮	墮	墮		隨	墮
122	c15	者入假有	者入假有	者入假有		一切法 一明	者入假有
123	c16	二者	二者	二者		示者	二者
124	c18	觀假	觀假	觀假		없음	觀假
125	c20	此	此	此		없음	此
126	c21	重	重	重		種	種
127	c22-23	生時生	生時生	生時生		主所生	生時生 (主所生)
128	c27	言	言	言		云	言(云)
129	c28	籍	籍	籍		藉	藉
130	528a1	受	受	受		愛	受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131	a2	者	者	者		生者	(生)者
132		皆	皆	皆		法皆	(法)皆
133	a3	大	大	大		天	大
134	a7	火炎	火炎	火炎		涅槃	火炎
135	a8	隨所	隨所	隨所		所	隨所
136	a11	修證	修證	修證		證	(修)證
137		生不生	生不生	生不生		生不生	不生生
138	a16	同	同	同		聞	同
139	a21	無量	無量	無量		없음	無量
140	a28	甚	甚	甚		其	甚
141	528b3	忘	忘	忘		忘/亡	忘
142	b4	也雙忘方便	也雙忘方便	也雙忘方便		없음	也雙忘方便
143	b9	諦	諦	諦		諦中	諦
144	b11	此	此	此	比	此	此
145	b12	他	他	他		地	他
146	b13	離無	離無	離無		無	(離)無
147	b16	本	本	本		本立	本立
148	b17	同	同	同		問	同
149	b19	大乘	大乘	大乘		없음	(大乘)
150		得	得	得		○	得
151	b23	非+20字	非+20字	非+20字		非	
152	528c1	離	離	離		見離	見離
153	c2	若	若	若		若修	若
154	c3	依	依	作		作	作
155		三	三	三		三三	三
156		列	列	州		州	州
157	c4	緣修	緣修	緣修		緣	緣修
158	c6	過	過	過		失	過(失)
159	c8	除	除	除		深	除
160	c9	殊	殊	殊	珠	殊	殊
161	c10	得	得	得		없음	得
162	c12	師偏	師偏	師偏		師偏師偏	師偏
163	c16	是	是	是	是入	是入	是入
164	c17	因緣	因緣	因緣		因緣因緣	因緣
165	c18	證	證	證		發	證
166	c19	佛眼	佛眼	佛眼		眼	佛眼
167	c21	習	習	習		集	習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168	c22	深	深	深		深故	深
169	c27	止	止	止		只	止(只)
170	c28	子	子	子		없음	子
171	529a3	華	華	華		卷	華
172		說	說	說		없음	說
173		心	心	心		없음	心
174	a4	比	比	比		此	比
175		祇	祇	祇		只	祇(只)
176	a12	法	法	法		法心	法
177	a14	脫	脫	脫		照	脫 『유마경』
178	a18	卽卽	卽卽	卽卽		卽	卽卽
179	a22	令	令	令		命	令
180	a25	兩	兩	兩		而	兩
181	a28	則	則	則		없음	則
182	529b2	文	文	又		又	又
183	b15	義	義	義		文	義
184	b19	結	結	結		法	結
185		多	多	多		夕	多
186	b22	人	人	人		없음	人
187	b26	求	求	求		없음	求
188	529c2	法	方	方	法	法	法
189		是	是	是		없음	(是)
190	c5	義	義	義		文	義
191	c8	習	習	習		集	習
192		遍	偏	偏	徧	遍	遍(徧)
193	c12	諸	諸	諸		없음	諸
194	c13	異	異	異		法異	異
195	c16	志	志	志		所	志
196	c17	習	習	習		集	習
197		明	明	明		明破	明
198	c18	遍	偏	偏	徧	遍	遍(徧)
199	c19	妄境	妄境	妄境	妄境 妄境	妄境	妄境破妄境
200	530a1	未	未	未		來	未
201	a3	頂	頂	頂		惠頂	頂
202	a5	漏	漏	漏		徧	漏
203	a6	進入	進入	進入		入	(進)入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204	a7	滿也	滿也	漏也		漏	漏(也)	
205	a12	值	值	值		但	值	
206	a13	或	或	或		惑	或	
207	a14	畢	畢	畢		必	畢	
208	a23-24	四+20字	四+20字	四+20字		四	四+20字	
209	a25	開三	開三	開三		開二	開三	
210	530b1	乘者	乘者	乘者		乘	乘者	
211	b4	無生智	無生智	無生智		없음	無生智	
212	b5	教	教	教		教菩薩	教	
213	b8	耶	耶	耶		取	耶	
214	b9	復	復	復		後	復	
215		如	如	如		女	如	
216	b11	說	說	說		況	說	
217	b13	大小乘 經論所明	大小乘 經論所明	大小乘 經論所明		小乘經論所 明大乘經論 所明	大小乘 經論所明	
218	b14	代	伐	代		氏	代	
219	b17	同	同	同		門	同	
220	b18	或	或	或		惑	或	
221		同	同	同		問	同	
222	b19	豈	豈	豈		堂	豈	
223	b22	既	既	既		없음	既	
224	b24	得	得	得		同一	得	
225	b25	卽	卽	卽		卽是	卽(是)	
226	b26	不	不	不		無	不	
227	b28	我	我	我		乘	我	『유마경』
228		入	入	入		人	入	
229		不	不	不		不瞻	不	
230	530c1	二	二	二		三	三	
231	c2	蜜	蜜	蜜		密	蜜	이하다수
232	c9	涅	涅	涅		大涅	(大)涅	
233	c10	緣	緣	緣		經	緣	
234	c11	卽大乘者	卽大乘者	卽大乘者		없음	卽大乘者	
235	c19	一	一	一		卽一	一	
236		卽是	卽是	卽是		是	卽是	
237	c20	涅	涅	涅		是涅	(是)涅	
238		菩提卽	菩提卽	菩提卽		없음	菩提卽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239	c21	一	一	一		是一	一
240		菩提卽煩惱	菩提卽煩惱	菩提卽煩惱		○卽是昔	菩提卽煩惱
241		無	無	無		無因	無
242	c26	煩惱	煩惱	煩惱		菩提	煩惱
243	c29	煩惱	煩惱	煩惱		菩提	煩惱
244	531a2	得	得	得		聞	得
245	a3	誓	誓	誓		撰悉撰	誓
246	a4	磁	磁	磁		慈	磁
247	a5	勤	勤	勤		懃	勤
248	a7	是	是	是		없음	(是)
249	a10	於今	於今	於今		今	(於)今
250	a13	界	界	界		없음	(界)
251	a15	所破	所破	所破		所	所破
252	a16	知	知	知		智	知
253	a18-19	法性五陰	法性五陰	法性五陰		없음	法性五陰
254	a20	涅槃	涅槃	涅槃		菩提	涅槃
255	a21	是見虛	是見虛	是見虛		卽是虛	是見虛
256	a22	足	足	足		神足	(神)足
257	a24	諸	諸	諸		護	諸
258	a25	菩提	菩提	菩提		菩薩	菩提
259	a27	若	若	若		答若	若
260	a28	位次	位次	位次		位	位次
261	a29	般	般	槃		槃	槃
262	a29	是爲	是爲	是爲		爲	是爲
263	531b7	境	境	境		없음	境
264		壞	壞	壞		懷	壞
265	b8	壞	壞	壞		懷	壞
266	b9	壞	壞	壞		懷	壞
267	b1	是	是	是		是得六根清	是
268	b2	似	以	以	似	似	似
269	b19	經	經	經		없음	(經)
270	b21	卽卽	卽卽	卽卽		卽	卽卽
271	b22	快	快	快		夫	快
272	b24	遊	遊	遊	遊於	遊於	遊於
273	b26	是	是	是		此	是(此)
274	b28	乘是	乘是	乘是		없음	乘是
275	b29	到	到	到		없음	到

번호	T	X	간본	송본	身延山	교감	비고
276	531c2	成淨	成淨	成淨		成	成淨
277	c3	一	一	一		없음	一
278		斷	斷	斷		類	斷
279	c4	斷結	斷結	斷結		類結	斷結
280		斷三	斷三	斷三		類之類三	斷三
281	c5	智斷	智斷	智斷		智類	智斷
282	c6	同	同	同		門	同
283		斷	斷	斷		類	斷
284	c7	議之	議之	議之		議	議之
285		見	見	見		見非此經	見
286	c9	煩惱煩惱	煩惱煩惱	煩惱煩惱		煩煩惱惱	煩惱煩惱
287	c13	決	決	決		决	決
288	c14-15	子小不障 大大不闕小	子小不障 大大不闕小	子小不障 大大不闕小		小不障小 子小不障 大大不闕小	
289	c15	今	今	今		令	今
290	c16	智慧涅槃	智慧涅槃	智慧涅槃		없음	智慧涅槃
291	c17	惑	惑	惑		意	惑
292	c18	卽反	卽反	卽反		良及	卽反
293		有	有	有		無	有
294	c21	目	目	目		自	目
295		惑障	惑障	惑障		變諦	惑障
296	c23	三智會	三智會	三智會		없음	三智會
297	532a1	解	解	解		修	解
298	a4	此	此	此		此卽	此
299	a5	種入空	種入空	種入空		稱入室	種入空
300	a9	空室	空室	空室		室空	空室
301	a10	修	修	修		修	種
302	a11	空室	空室	空室		室空	空室
303	a12	有疾菩薩	有疾菩薩	有疾菩薩		없음	有疾菩薩
304	a14	等	等	等		第	第
305		修	修	修		種	種
306	a15	正	正	正		없음	(正)
307	a17	門	門	門		門品	門品
308	a18	用	用	用		없음	用
309	a22	佛國	佛國	佛國		佛佛國	佛國
310	a23	果	果	果		果因	果
311		屬	屬	屬	囑	囑	囑
312	a24	室外	室外	室外		外	(室)外

약호

T: 大正新修大藏經

X: 新纂續藏經

『日藏』: 日本大藏經(1917年 刊行)

1차 자료

智顓 作, 『維摩經玄疏』권1~권2, 身延山文庫 所藏寫本

智顓 撰, 『維摩經玄疏』, 正保五年 刊本, 京都大學 藏經書院所藏本

智顓 撰, 『維摩經玄疏』, 貞享三年 刊本, 慶應義塾大學所藏本

智顓 撰, 『再校維摩經玄義』, 元文五年 刊本, 身延山大學所藏本

智顓 撰, 『維摩經玄疏』(『大正藏』38)

智顓 撰, 『維摩經玄疏』(『卍續藏』27)

智顓 撰, 『三觀義』(『新纂續藏經』55, CBETA)

智者 說, 『妙法蓮華經玄義』(『大正藏』33)

智者 說, 『摩訶止觀』(『大正藏』46)

灌頂 纂, 『國清百錄』(『大正藏』46)

道宣 撰, 『廣弘明集』(『大正藏』52)

道綽 撰, 『安樂集』(『大正藏』47)

玄日 錄, 『天台宗章疏』(『大正藏』55)

永超 集, 『東域傳燈目錄』(『大正藏』55)

證眞 記, 『維摩玄略鈔』(『日本大藏經』7)

證眞 撰, 『維摩疏私記』(『日本大藏經』7)

本純 撰, 『維摩詰經玄疏籤錄』, 刊行年未詳, 東洋大學哲學堂文庫藏本

2차 자료

大島啓禎

1979. 「『維摩經玄疏』をめぐる二,三の問題」, 『印度學仏教學研究』通号55, 東京:日本印度學佛教學會.
小野嶋祥雄
2009. 「『天台維摩疏』智顛親撰説への疑義-吉藏撰述書との比較を通して」, 『岐阜聖徳學園大學佛教文化研究所紀要』9号, 岐阜:岐阜聖徳學園大學仏教文化研究所.
菅野博史
2012. 『南北朝・隋代の中國佛教思想研究』, 東京:大藏出版株式會社.
高山寺經藏典籍文書綜合調査團編
1975. 『高山寺經藏典籍文書目錄』第2. 東京:東京大學出版會.
佐藤哲英
1961. 『天台大師の研究』, 京都:百華苑.
藏經書院發行
1904. 「大日本續藏經第一輯案(第一次)」, 『大藏經報』臨時增刊第24號.
1909. 「大日本續藏經第一輯目錄」, 『大藏經報』臨時增刊第76號.
中村元
1990. 김지건 역, 『中國人の 사유방법』, 서울:까치.
日蓮宗事典刊行委員會編
1981. 『日蓮宗事典』, 東京:日蓮宗宗務院.
平井俊榮
1985. 『法華文句の成立に關する研究』, 東京:春秋社.
身延文庫典籍目錄編集委員會編
2005. 『身延文庫典籍目錄』下, 山梨:身延山久遠寺.
山口弘江
2017. 『天台維摩經疏の研究』, 東京:國書刊行會.

An Attempt at a Critical Edition of *Weimojingxuanshu* I

–After discovering a manuscript from the *Minobusan*
library collection –

Jaeyun LEE

(Ph.D Student,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Korean Buddhism,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

Tiantai Zhiyi (天台 智顓, 538~597) wrote *Weimojingxuanshu* (維摩經玄疏, or *Xuanshu*) as an offering to a king. It is one of his oldest works, and has received critical acclaim and academic interest for its ideological value, as well as its exceptional literary quality.

However, it was only after the modern period in Japan that *Xuanshu* was included in the *Manji Zokuzōkyō* (卍續藏) and *Taishō shinshū daizōkyō* (大正藏) as an original *Tripitaka* (a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Despite its inclusion, the original book (OR original text) is criticized for containing numerous misprints and mispagnations that degrade its completeness as a form of critical literature. Further complications in translation, annotation and research of the literature, will be difficult to avoid without first making fundamental corrections.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ideologies of *Xuanshu*, this study will first attempt to correct misspellings and miswritten words, and then review the existing manuscripts of the first and second book of

Xuanshu.

The next step will involve an examination of the two manuscripts, discovered by the writer, from the collection of the Minobusan library, in Japan. Although *Xuanshu* comprises of six volumes, only two were recovered by the writer. Lack of information in the original book (OR original text), including the transcription date, and the unknown whereabouts of the missing volumes, make it hard to validate. Despite this, the fact that these are the only known manuscripts of their kind in existence makes them important to study.

The original book (OR original text) will be compared to other existing versions and commentaries to prove that it originated at an earlier time in history than the ones of *Manji Zokuzōkyō* (卍續藏) and *Taishō shinshū daizōkyō* (大正藏), which are from the *Edo* period (1603~1868).

Keywords : *Tiantai, Zhiyi, Weimojingxuanshu, Taishō shinshū daizōkyō, Critical editing, Minobusan library, Manuscript*

2018년	10월 12일	투고
2018년	12월 4일	심사완료
2018년	12월 7일	게재확정